(가칭)협치성북민간추진단 준비위원회 5차 회의록

일시 2/1(수) 13:30
장소 안암동 주민센터/자치회관 4층 강의실
참석 고경남, 김기민(간사), 김희자(부의장), 박정근, 박정애, 배정학, 서정례, 송민기, 유제훈, 이미경, 이선영, 이종안, 임진규, 정윤주, 홍수만(의장) 등 15인
위임 김경서, 김정연, 김종환, 박현숙, 황선영 등 5인
참관 은현기(성북구청 마을민주주의과 미을기획팀장)
기록 김기민

- 성원 확인
    - 총원 : 25명
    - 참석 : 출석 15명 + 위임 5명 = 20명
    - 불참 : 5명
    - 현장 출석 및 위임 인원 합쳐 참석자 20명으로 과반수인 20명 이상 참석함에 따라 5차 회의가 성원됨을 확인

- 전차 회의록 낭독 : 1/18(수) 준비위 4차 회의록 (별첨)
    - 낭독 : 간사
    - 다양한 단위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김희자)
        -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자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의미하는 것. (김기민)
        - 어떻게 섭외하고 모셔야 하는지 이야기가 있었는지? (김희자)
        - 구체적인 방안, 일정, 로드맵 등을 제시해 주시지는 않았다.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해주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김기민)
        - 주민자치위원만 의미하는 건지? 직능단체는? (이종안)
        - 그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은 예시로 보시면 된다. (김기민)
        - 구청에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종안)
        - 주민자치위원, 마을계획단 등 구청 입장에서 주민 대표, 협치 파트너 상대로 생각하는 단위가 있고, 민간에서 생각하는 단위가 있는 상황. 그것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 만날 수 있는 자리를 2-3월 경 만들고자 한다. 해당 영역에서의 토론회,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그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협치성북회의(가칭)를 구성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협치 영역의 여러 주체들을 조직하는 것은 민간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은현기)

- 현황 공유

- 안건
    - 정식 명칭 결정
        - 꼭 협치, 성북이 들어가야 하는지? (서정례)
            - 그것은 아니지만, 활동 키워드가 협치고 지역이 성북이라서 빼고 간다면 정체성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김기민)
            - 현재는 추진 단계지만 추진이 끝나면 추진단이란 명칭은 맞지 않을 것. 주요 키워드인 협치, 성북은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2, 3안 중에 결정하면 좋겠다. (박정애)
        - '민간'보다는 다른 표기가 좋을 것 같다. (이종안)
            - 민간 대신 주민 등 다른 표기도 가능하다. (김기민)
            - '시민'이 어떨지? (박정애)
            - 포괄적 의미의 시민보단 '구민'이 더 좋겠다. (유제훈)
            - 구민 : 4명 / 시민 : 10명
            - 협의회 : 9명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명칭 확정**
    - 규약(안) 3차 수정안 검토
        - 현직 정치인, 선출직/임명직 공무원, 종교 성직자 등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
            - 임원 전체 안된다는 것인지? (이종안)
            - 그것 역시 논의 대상이다.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김기민)
            - 분과위원장, 운영위원 정도는 맡을 수 있겠지만, 본 회의 대표는 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김희자)
            - 대표 포함하여 임원 일체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 활동하기도 어려울 것. (박정근)
            - 대표, 운영위원 등 임원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서정례)
            - 공무원은 당연하지만, 성직자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많은 성직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지 고민이다. 성직자를 배제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송민기)
            - 어떤 오해가 있을지? (김희자)
            -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신부, 목사들이 많은 상황. 그 분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지 염려된다. (송민기)
            - 종교도 분야가 다양하다. 그 분들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 대표자를 참여시키면 모르지만, 특정 종교가 대표나 임원을 맡을 경우 괜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박정근)
            - 대표 선임만 제외하고, 운영위원은 선임 가능한 것으로 하자. 단, 정치적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자. (홍수만)
            - 시민단체의 경우 성직자가 임원을 맡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본다. (김희자)

        - 꼭 그렇지만은 않다. 분야마다 상이함이 있다. (홍수만)
        - 성직자에 대한 임원 피선거권의 건 : 대표 선임 불가로 하고, 정치적 종교적 중립 의무 명시하는 것으로 결정.
    - 분야별 분과위원장 자격 제한 조건은 철폐
    - 사임, 해임으로 보궐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로 하는 것으로 결정.

- 회원 가입 신청서 초안 검토

- 2017년도 사업 계획(안) 검토 (별첨)
    - 계획(안) 브리핑 : 홍수만 의장
    - 협치 주민 리더 교육
        -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좋지만, 일체의 보수 없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서정례)
            - 기본 소양을 교육하는 것이니 관심 가질 것으로 본다. 이후 서울시, 자치구 차원에서 협치 정책이 추진된다면 교육 동력은 이어갈 수 있을 것. (홍수만)
        - 교육 주체는? (유제훈)
            - 마을민주주의과 내 마을시민교육센터가 있다. 주민 교육 사업하는 부서로서, 이곳과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홍수만)
            - 피교육생은 협의회 회원이 되는 건지? (유제훈)
            -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 (홍수만)
        - 정책별, 분야별 깊이있게 들어가야 할 것이 많을 거라 본다. 분과원들의 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내부 교육,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 (배정학)
            - 협치정책연구회 같은 것을 구성하면 어떨지? 다만 협치 주민 리더 교육은 시민 대상 교육이고, 집중 교육은 별도 학습 사업으로 가야 할 것 같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홍수만)
            - 정치, 행정에 관련된 영상, 책들이 있다면 공유하고 나눠보면 어떨지. (임진규)
            -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경우 예산서를 보면 좋은데, 제공이 잘 안된다. (배정학)
            -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해볼 수는 있지만 절차가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 (홍수만)
            - 마을계획단 활동을 하다 보니 행정공무원들만 아는 정보가 많더라. (유제훈)
            - 협치정책에 대한 연구, 분야별 예산에 대한 연구, 협치 관련 자료 공유 사업 추가.
        -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단도 이미 있는데 모니터링단을 추가적으로 더 구성해야는지? 협의회 구성원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지? (이종안)

        - 협치 활동가를 육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 포괄적인 영역을 다룬다. 기존 마을활동가들이 하실 수도 있다. (홍수만)
    - 협치 정책 공유 박람회
        - 박람회에선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유제훈)
            - 구청 부서의 정책 홍보, 지역 내 비영리단체나 협동조합 등의 사업 홍보 등. 개별 홍보보다는 일괄적으로 통합 홍보를 하게 되면 더 효과가 높아질 수 있고, 참여 단체간 네트워킹 등의 시너지도 기대. (홍수만)
            - 홍보가 주 목적인 것으로 보면 되나. (유제훈)
    - 사업 계획 초안은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박정애)
        - 임원단 회의에서 논의. (홍수만)
        - 추진 일정, 로드맵이 있으면 흐름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준비위원회의 향후 일정도 고민하면 좋겠다. (박정애)
    - 저마다 그리는 협치에 대한 그림이 있다. 발족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개념 정립이 정확히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팩트가 있으면 좋겠다. (박정애)
        - 담당 부서에 요청해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홍수만)
        - 기초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 말고, 골자를 갖고 내용을 사전에 내용 숙지한 뒤 참여하는 심화된, 실질적인 교육 커리큘럼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니즈를 정확히 전달해서 그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박정애)

- 상설 기구 설치
    - 상기 사업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설 조직, 상근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서울시가 공모하는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의에서 다뤄지면 좋겠다. (홍수만)

- 조직 구성
    -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조직되고 분과위원장이 선임되어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창립 전까지 분과 조직화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홍수만)
    -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분과당 최소 10명 정도는 조직해야 할지 않을지. (홍수만)
        - 10명은 너무 과하다. (김기민)
        - 상한선 없이 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서정례)
        - 목표치가 없으면 어렵다고 본다. 노력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 (김기민)
        - 10명을 최소 기준으로 성의를 다해 노력해보기로 함.

- 창립총회준비위원회 조직
    - 당연직 : 준비위원회 임원 김기민, 김희자, 홍수만 등 3인

        - 추가 : 유제훈, 이선영, 이종안 등 3인

    - 기타
        - 협치는 단위 사업이 아닌 정책 제안, 개선 등 전반에 관한 것.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각한 문제 발생. (타운홀미팅 등) 협치 기구가 행정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 안된다고 봄. 물론 민원 제기 대상도 아니다. 상호 인정을 전제로 협력적 파트너십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하는 것. (홍수만)

- 회비 납부(현장)

    - 1~2월 (20,000원) : 박정애

    - 2월 (10,000원) : 김기민, 김희자, 박정근, 배정학, 서정례, 송민기, 유제훈, 이선영, 이종안, 임진규, 정윤주, 홍수만 등 12인

- 이후 일정

    - 준비위 6차 회의 : 2/15(수) 13:30 정릉시장 청년살이발전소 예정
      * 장소 섭외 : 고경남 준비위원님

    - 창립 총회 : 3월 초~중순. 3/8(수) 또는 3/15(수)